

한국실리콘,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지법, 수행 가능성 고려 ...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웃돌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한국실리콘(대표 윤순광)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고 있고,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14일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담보권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5위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인 한국실리콘은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태양광 시장이 침체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2012년 11월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14>